

# 재무목표에 따른 투자전략

돈에는 성격이 따릅니다. 돈은 모두 같은 돈이지만, 돈의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은퇴를 한 시점에 모든 자산을 토지로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흙을 파먹고 살 수 없으니 굶어죽겠죠. 당연히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글 \_ 이재엽 | 재무설계사 E-mail : nest4000@naver.com C · P : 010-7708-4000

펀드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시장이 최근처럼 좋지않아 6개월후에 30%이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큰일입니다. 6개월후 써야할 돈을 투자한 건데... 이렇듯 자금의 성격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이 적절해야 함에도 우리는 "수익률", 그것도 단기수익률에 따라 소중한 자산을 아주 쉽게 바꾸곤 합니다.

자금의 성격에는 임의적인 자금과 필수적인 자금이 있습니다. 이 구분은 무엇을 우선 준비해야 하는 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돈을 먼저 모아야 할까요? 바로 반드시 쓸 수 밖에 없는 돈을 먼저 모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사기 위한 자금과 생활비 중 어느 것이 더 필수적인가요? 자녀의 등록금과,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 준비할 자금 중 어느 것이 더 필수적인가요? 자녀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는 자금과 노후에 써야 할 생활비 중 어느 것이 더 필수적인가요?

필수적인 자금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것은 시간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시험보기 한달전에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다가 바로 코앞에 다치면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이러한 본성이 특별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닥치지도 않은 먼 미래를 모두 걱정한다면 우리는 아마 제 명대로 못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과 관련된 문제는 다릅니다. 시험이야 한번 그르치면 다시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년에는 은퇴해야 하는데, 모아 놓은 돈은 고작 1000만원밖에 없다

고하면... 그럼 1년동안 5억원이나 하는 노후자금을 모아 야만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해야겠죠.

인생은 소중한 것이고, 다시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는 것이고, 힘들지만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자금의 성격을 가진 목표라면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필수자금은 역시 노후자금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자금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격으로 일회적인 자금과 지속적인 자금이 있습니다. 일회적인 자금이란, 한번의 지출행위로 목적을 달성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자동차구입, 여행, 이벤트자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자금의 성격상 규모가 크지 않으며, 굳이 미리부터 걱정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덜 한 자금입니다. 지속적인 자금이란, 한번의 지출이 아닌 수년, 수십년간의 지출이 지속되는 성격의 자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자금과 노후자금입니다. 수년, 수십년간 지속되므로 부족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돈의 성격에 따른 투자 및 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할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자시점과 기간을 살펴보면, 오랜기간 쓸 돈은 오랫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은 돈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는 힘들이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자시점이 늦어질수록 "료또"에 의존하게 됩니다.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원리를 살펴보면, 투자기간이 길수록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굳이 위험이 있는 자산군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금이 부족하다면, 위험이 있지만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군에 투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간 운용을 할 수 있으므로, 초기절반은 아주 적극적으로, 중반기에는 중립적으로, 후반기에는 보수적으로 투자전략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위험을 의미)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한정적인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준비자금의 우선순위와 준비기간을 설정해서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계획을 세우고 점검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행복한 인생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